

한 번 뿐인 인생인데

사람이 세상을 두 번 정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? 잘못된 것은 고치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그래서 지금 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면만...

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인가 계속되는 열과 기침으로 인해 병원을 찾았을 때 폐농증이란 생소한 병명을 들었고 그 병은 결국 결핵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. 당시 난 학생이었고 젊음이 좋아서 인지 보건소에서 꾸준히 약을 복용해서 거의 완치에 이르게 되었다.

그러다 얼마 후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그 치료의 과정에서 다시 결핵이 재발하게 되었고 그 불길한 사건은 내 인생에 결핵이라는 델레야 뿔 수 없는 인생의 동반자를 얻게 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.

결핵은 점차적으로 내 인생의 부분들을 침식해 왔고 난 그 결핵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다. 병고의 세월에 치진 나는 내 육체의 일부분을 떼어내는 폐절제 수술이라는 고통스러운 아픔을 통하여 결핵이라는 병과의 헤어짐을 계획했다. 그리고 그 계획은 서서히 성공이라는 모습으로 내게 다가왔다. 굳이 잡히고 병의 진전이 있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생각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

되었다.

97년 균의 잡힘은 결핵으로 인해 힘들어 했던 나에겐 정말 기쁨의 소식이며 그 질긴 결핵과의 인연을 정리할 수 있는 확실한 기회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. 결국 난 내 인생의 계획들을 세우기 시작하였고 그 계획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.

컴퓨터 학원에 등록하여 배움을 시작했고 다양한 기회를 잡으려 무진 애를 썼다. 당시 나는 결핵으로 인해 남들보다 많이 뒤쳐진 인생을 회복하고 소비해 버린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면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강한 강박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다. 그래서 가만히 있다는 그 자체가 불안감이에요, 무엇이든 행동하는 삶을 지향했던 것이다. 그러나 이러한 나의 욕심은 결국 내게서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하는 아픔의 결과만을 만들어 내게 되었다.

“결핵 재발” 이것이 내가 얻을 수 있었던 유일한 소득이었다.

무리하게 몸을 사용하고 정신적으로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붙잡으려 했던 나의 욕심의 결과로 몸은 다시 약해지고 약해진 몸은 면역의 저하를 만들고,

그래서 결국 다시 결핵이 내 몸 속에서 활동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 냈던 것이다.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 내 모습이었다고 생각되지만 그 당시 내게는 더 이상의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절박함 많이 가득했던 것이었다.

또다시 결핵이라는 동반자와의 삶을 시작한 나는 공주병원으로 마산병원으로 이곳 저곳을 헤매며 이미 만성화되어진 내 몸속의 결핵과의 싸움을 계속해 왔다. 그리고 결국 오늘 이곳 보양원이라는 삶의 동산에서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결핵과의 길긴 싸움과 함께 내 삶의 잃어버린 시간들을 아쉬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.

언제나 가슴에 남는 것은 왜 내가 그리도 성급했을까, 하는 아쉬움이다. 내게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잘 생각해서 가장 좋은 부분으로 채우고 계획성 있게 행동했다면 지금의 내 인생의 모습은 정말 달랐을 것을 순간적 욕심과 눈앞의 것만을 바라보았던 나의 무지가 이렇게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픔의 상처로 가득하게 한다.

그래서 다들 결핵은 재발 확률이 높다고 하는 것인가 보다. 하지만 더 가슴 아픈 것은 결핵이 재발을 잘한다는 사실보다는 결핵으로 아파야 했던 사람들이 그 인생의 뒤편과 사회에서 얻어지는 불안한 자신의 위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무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현

실이다. 결핵을 치료한 후의 사후 관리나 생활의 안정 그리고 정신적 갈등의 해소 등을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지식과 재도의 부재가 결국 재발 확률을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.

만약 지금 내가 다시 건강을 회복한다면 난 다시는 예전처럼 성급한 인생의 결정과 욕심을 따라 사는 오류를 범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.

오히려 철저하게 계획하고 생각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고 가장 안정적인 삶을 지향하여 내게서 사라진 활동의 부족함을 채우며 내 인생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꾸며가고 싶다. 그것이 한 번 뿐인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...

동산의 하늘이 유난히도 푸르다.

내 손을 통해 다듬어지는 분재들이 어느새 파란 솔잎을 만들어 내고 있다. 처음 내가 보았을 때의 그 초라한 모습은 어느새 사라지고 제법 소나무의 당당함을 보여주고 있다.

아침저녁으로 물을 주면서 나날이 바뀌어 가는 저 분재들처럼 내 인생도 나날이 바뀌어 가야 하리라 생각하며 그 날의 그 모습을 가슴에 한가득 품고 난 오늘도 이렇게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조용히 기다림으로 살아간다.

되돌릴 수 없는 한 번 뿐인 인생을 위하여 이렇게...
↑

결핵환자의 나들이는 결핵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, 서로를 위로하는 공간입니다. 결핵을 앓으셨거나 현재 앓고 계신 분들의 소중한 서연 기다립니다.